싱가포르 영어와 국제 영어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표준 싱가포르 영어

싱가포르의 영어는 고유한 특징을 지닌 영어의 한 변종입니다. 표준 싱가포르 영어는 영국식 철자와 문법을 따르므로, 싱가포르 계약서에는 *colour*, *realise*, *programme*으로 표기됩니다. 발음은 영국 남부 영어를 모델로 대체로 비R음화(non-rhotic)되어 있으며, 리듬은 영국 영어의 강세 박자 리듬과 달리 음절 박자 리듬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1] 2003년 국립교육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의 연구는 표준 싱가포르식 발음이 "on the cusp of being standardised"라고 결론지었습니다.[2] 문어에서 표준 싱가포르 영어는 런던이나 시드니의 영어와 구별하기 어려우며, 법과 금융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싱가포르의 영어를 브라즈 카치루(Braj Kachru)가 제시한 세 개의 동심원 중 두 번째 원에 속하는 새로운 영어 변종으로 설명합니다. 즉 식민 통치와 함께 들어와 국가, 학교, 전문직의 언어가 된 "외곽원(outer circle)" 언어입니다.[3] 싱가포르는 외곽원 변종이 내부원(inner circle)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영어를 제1언어로 삼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쓰는 화자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싱글리시

표준 싱가포르 영어 옆에는 싱가포르의 구어체 영어인 싱글리시가 있으며, 언어학자들은 이를 싱가포르 구어 영어(Singapore Colloquial English)라고 부릅니다. 그 문법은 화제 중심적이며, 동사 *be*를 흔히 생략하고, 반복 표현을 사용하며, *lah*, *ah*, *what* 같은 담화 첨사에 의존합니다. 어휘는 영국 영어를 기반으로 하며, 주로 말레이어와 호키엔어에서 온 차용어가 있고 표준중국어의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4] *kiasu*(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함), *shiok*(맛있거나 아주 좋음), *kaypoh*(참견쟁이) 같은 단어는 모든 공동체의 싱가포르인이 이해합니다.

학자들은 두 변종의 관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존 플랫(John Platt)은 이들을 한쪽 끝에 표준 영어, 다른 쪽 끝에 가장 강한 싱글리시가 있는 연속체 위의 지점들로 보았습니다. 1990년부터 앤시아 프레이저 굽타(Anthea Fraser Gupta)는 이들을 양층언어(diglossia) 쌍으로 설명했습니다. 화자가 공식적 목적에는 상위 변종을, 비공식적 목적에는 하위 변종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5] 두 번째 설명은 금융중심지의 경험에 들어맞습니다. 탕비실에서 싱글리시를 쓰는 바로 그 은행가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고객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신용 품의서를 작성할 때는 표준 영어로 전환합니다.

바른 영어 사용 운동

정부는 오랫동안 싱글리시를 영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 왔습니다. 1999년 국경일 대회(National Day Rally)에서 고촉통(Goh Chok Tong) 총리는 “if we speak a corrupted form of English that is not understood by others, we will lose a key competitive advantage”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2000년 4월 29일 “Speak Well. Be Understood.”라는 구호 아래 바른 영어 사용 운동(Speak Good English Movement)을 시작했습니다.[6] 고촉통은 1999년 대회에서 이미 인기 시트콤 *Phua Chu Kang Pte Ltd*를 지목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강한 싱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리시를 구사했습니다. 그 후 이 프로그램은 싱글리시 사용을 줄였습니다.[7] 리콴유는 1999년 이 논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Singlish is a handicap we must not wish on Singaporeans."[8]

방송 정책도 같은 노선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의 전신인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의 지상파 텔레비전 프로그램 규정(Free-to-air Television Programme Code)은 인터뷰 대상자가 다른 형태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인터뷰에서만 싱글리시를 허용했습니다.[9] 매년 새로운 구호로 갱신되는 바른 영어 사용 운동은 싱가포르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문법적으로 올바른 영어를 쓰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메시지는 언제나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세계에 서비스를 판매하는 금융중심지에는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쓰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에서 문화적 표지로

2000년 이후 대중의 태도는 변해 왔습니다. 2013년과 2018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절반이 싱글리시를 잘하거나 매우 잘한다고 답했으며, 젊은 응답자일수록 더 높은 능숙도를 보고했습니다. 2018년 정책연구소(Institute of Policy Studies)의 연구에서는 싱가포르 국민의 8%가 싱글리시를 주된 언어로 꼽은 반면, 약 3분의 1은 영어를 꼽았습니다.[10] 정치 지도자들도 어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2015년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는 일부를 싱글리시로 말하면서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겼습니다. 2019년 바른 영어 사용 운동의 위원장 제이슨 리우(Jason Leow)는 싱글리시를 "cultural marker for many Singaporeans"라고 표현했습니다.[11]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lah*와 *sinseh*는 2000년 3월, *kiasu*는 2007년에 등재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ang moh*, *shiok*, *sabo*를 포함한 19개의 싱가포르 용어가 뒤를 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BTO*, *wayang*, *kaypoh* 등 11개가 추가되었습니다.[12] 영국 영어의 대표 사전이 싱글리시 단어를 인정했다는 것은 싱가포르 영어가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어와 나란히 인정된 국가 변종 중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상업적 자산으로서의 이해 가능성

금융중심지에 싱글리시 논쟁은 분명한 실무적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로서 영어의 가치는 해외의 고객, 거래상대방, 규제 당국, 법원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표준 싱가포르 영어는 이 기준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싱가포르 판결, MAS 협의문서, 싱가포르 로펌의 의견서는 표준 국제 영어로 읽히며, 런던이나 뉴욕의 독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싱글리시는 싱가포르인 사이에서 쓰이는 친밀감과 정체성의 언어입니다. 전문가들이 두 언어 사용역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 한 싱글리시의 존재는 금융중심지에 아무런 비용도 초래하지 않으며, 대다수 전문가는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합니다.

더 심각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계 언어로 일하는 금융중심지는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모든 중심지와 경쟁합니다. 런던, 뉴욕, 홍콩, 두바이, 그리고 인도와 걸프 지역의 국제금융중심지는 모두 영어로 된 법, 규제, 분쟁 해결을 제공합니다. 영어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만, 주요 경쟁자들에 비해 차별화된 이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차별화된 이점은 영어와 다른 무언가의 결합에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아시아 언어, 청렴하다는 평판,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제J편의 이어지는 장들과 제K편의 경쟁에 관한 장들이 이 점을 다시 다룹니다.

주

1. Wikipedia, “Singapore English”(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표준 싱가포르 영어는 “retains British spelling and grammar”, “Singaporean accents can be said to be largely non-rhotic”. 싱가포르 영어는 강세 박자 리듬의 영국 영어와 달리 음절 박자 리듬을 띠는 경향이 있음. ↩
2. Wikipedia, “Singapore English”(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3년 국립교육원 연구에 관하여. ↩
3. Braj B. Kachru,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uter circle”, Randolph Quirk and H.G. Widdows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eds), *English in the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11~30면. ↩

4. Wikipedia, "Singlish"(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발음, 화제 중심적 문법, *be* 생략, 반복 표현, *ah*, *lah*, *what* 같은 담화 첨사, 그리고 주로 말레이어와 호키엔어에서 온 차용어가 있는 영국 영어 기반의 어휘에 관하여. ↩
5. Wikipedia, "Singlish"(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플랫(1975~1989)은 싱가포르 영어와 싱글리시를 "creole continuum"으로 보았고, 굽타(1990년부터)는 표준 싱가포르 영어를 상위 사용역으로, 싱가포르 구어 영어를 하위 사용역으로 하는 양층언어 쌍으로 보았음. ↩
6. Wikipedia, "Speak Good English Movement"(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0년 4월 29일 고촉통 총리가 시작했으며, 데이비드 웡(David Wong)이 이끄는 위원회가 운영. 고촉통의 1999년 국경일 대회 발언 "if we speak a corrupted form of English that is not understood by others, we will lose a key competitive advantage". 구호 "Speak Well, Be Understood". ↩
7. Wikipedia, "Singlish"(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99년 고촉통은 *Phua Chu Kang Pte Ltd*와 그 싱글리시 사용을 지목했으며, 그 후 이 프로그램은 싱글리시를 줄였음. ↩
8. Wikipedia, "Language policy in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he Sunday Times*, 1999년 8월 15일에 관한 Wee (2010) 인용: "Singlish is a handicap we must not wish on Singaporeans." ↩
9. Wikipedia, "Language policy in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미디어개발청의 Free-to-air Television Programme Code 인용: 싱글리시는 "interviews, where the interviewee speaks only Singlish"에 한해 허용됨. ↩
10. Wikipedia, "Languages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8년 정책연구소 연구에서 8%가 싱글리시를, 약 3분의 1이 영어를 주된 언어로 꼽았음. 2013년과 2018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절반이 싱글리시를 잘하거나 매우 잘한다고 답했음.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1. Wikipedia, “Singlish”(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5년 리센룽의 발언에 관하여. Wikipedia, “Speak Good English Movement”(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이 운동의 위원장 제이슨 리우는 2019년 6월 14일 2019년 캠페인 출범식에서 싱글리시를 “cultural marker for many Singaporeans”라고 불렀음. ↩

12. Wikipedia, “Singlish”(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lah*와 *sinseh*는 2000년 3월부터, *kiasu*는 2007년부터 OED에 등재. 2016년 *ang moh*, *shiok*, *sabo*를 포함한 19개 용어, 2026년 *BTO*, *wayang*, *kaypoh*를 포함한 11개 용어.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